

# “친노 강경파 제외” “모든 기득권 버려야”

통합민주당 워크숍 당 진로 격론

## 중도통합이나 대통합이나 팽팽한 대치 대통합과 탈당 예고 주말 범여통합 고비

범여권 대통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이 각각 범여권 대통합의 방법론을 놓고 심각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통합민주당은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현역의원 워크숍을 가졌으나 대통합과 중도통합과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는 김효석, 이낙연, 김중업 의원 등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의원 대부분이 불참, 김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주말까지 당 지도부가 대통합과 관련,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일부 의원들은 물론,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의 탈당도 예고되고 있다.

◇중도세력 대통합론=박상천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내놓은 대통합 방법론이다. 열린우리당의 색깔을 최소화하는 대통합을 이뤄 새로운 신설 정당의 이미지로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법론이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해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유시민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친노 강경파 및 개혁당 출신 세력들은 대통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대선 예비주자 중심의 가고 정당을 창당, 열린우리당과 합당하겠다는 발상은 ‘도로 우리당’에 불과하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합민주당이 지향하는 대통합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는 중도 개혁 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대통합론=일단 열린우리당 해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특정세력 배제론을 주장하기보다는 기득권을 포기하며 모두를 아우르는 대

합에 나서야 국민적 감동을 견인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세력 배제론은 범여권 제 정파의 반발을 불러 시간이 촉박한 대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 입장이다. 신중식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대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로 나가 우리당 탈당과 시민사회 세력 등과 창당 교두보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통합 성사 가능성=일단 통합민주당의 내부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지만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통합민주당은 물론 제3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탈당과 의원들의 당 해체 추구가 거세

지고 있는 데다 당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정치적 해체 선언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당내 대통합과 14일까지 대통합과 관련,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을 경우 탈당에 나서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조만간 타협점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열린우리당이 해체를 선언, 제3지대로 모이고 통합민주당이 합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통합민주당은 당 전체가 합류하거나 대통합을 명분으로 당 해체도 선택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일 오후 광복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중도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추미애 전 의원이 박상천, 김한길 공동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통합민주 기득권 포기, 우리당 해체, 대통합 합류해야”

박광태 시장·박준영 지사 “박대표 만나 대통합 설득할 것”

통합민주당내에서 가열되고 있는 대통합 논란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양 시·도지사 모두 범여권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최근 대통합과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 시·도지사는 대통합과 제시한 탈당 시한인 이번 주말을 앞두고 11일 서울에서 박상천 대표와 만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박상천·김한길 대표가 합치는 소통합으

로는 한나라당에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통합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은 당을 해체한 후 대통합해서 단일 정당을 만들어야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통합을 하려면 통합민주당은 당명과 대표만 빼고 모든 권한, 정책성 등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 심판이 끝난 열린우리당은 해체한 뒤 대통합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박준영 전남지사, 김효석·이낙연·신중식·채일병 의원, 정균환 전 의원 등과 4차례 대통합 모임을 통해 이런 방

향을 정했다며 11일 박 대표를 박 지사와 함께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박 대표가 (대통합을) 못하겠다고 하겠느냐. 만약 (대통합이) 안되면 본인도 곤란해질 것이다”며 “이달 말까지는 대통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시장은 하지만 “대통합 모임의 김효석·신중식 의원 등도 탈당까지는 가선 안된다”면서 “(박 대표가) 거부하면 그때 가서 (탈당 문제는) 검토해 볼 일”이라고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집권 여부를 떠나 건전한 정책대결이 이뤄지면 (범여권) 모두 힘을 모아



〈박광태 시장〉 〈박준영 지사〉

야 한다”는 말로 대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에서 투자유치 활동 중 기자와 통화한 박 지사는 “단체장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큰 틀에서 범여권의 통합은 정당성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옳다”고 강조했다.

/박지영기자 unipark@kwangju.co.kr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친노세력 포함 신당 창당후 국민경선 통해 후보 뽑아야”

DJ, 정동영·김두관 면담  
범여권 대통합 기준 제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지난 9일 정동영 전 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합 이외에는 길이 없다”며 범여권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국민경선을 통해 한나라당과 일 대 일로 경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밝히, 범여권의 대선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 선출하기보다는 대통합신당 창당 후 국민경선을 통해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대통합에 기여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패하게 하는 지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히 통합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공개적인 경고에도 나섰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10일 대표적인 친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친노 세력으로 대통합에 적극 나선 것은 잘한 것이다”고 말해, 사실상 친노 세력까지 포함한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물밑에서 범여권 대통합을 주도해왔던 김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대선까지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런 형국으로는 대통합이 진행되다가는 결정적 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에 나름대로 정치적 명분 제공하고자 적극적으로 직접 나섰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범여권 대통합의 전면에 나선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대통합을 위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친노 성향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주문하라는 의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홍업 의원 ‘대통합 행보’ 촉각

DJ 의중 반영... 아직은 신중한 움직임

통합민주당의 구 민주당 출신 일부 의원이 대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탈당을 포함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김홍업 의원(무안·신안)의 거취가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현 범여권 인사 가운데 그 누구보다 크다는 점에서 김홍업 의원의 행보는 김심(金心·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읽히면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김 의원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일단은 대통합과로 분류되고 있다. 김 의원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친노 세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다 김 전 대통령의 범여권 대통합 구상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몇 차례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당선 직후, 범여권 대통합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행보

를 보이고 있다. 삼불리 움직일 경우, 김 전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민주당 합당 행사에 불참했던 김 의원은 통합민주당 현관식에는 참석하는 등 나름대로 중립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여권 대통합이 급류를 타자 김 의원의 행보를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로 예정됐다가 무산된 통합민주당 대통합과의 오찬 회동에 김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었던 것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정치적 부담 등에 따라 당장 범여권 대통합 국면에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달 중순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적 시기가 오면 대통합의 깃발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CA Entertainment and KATV ACCOMPANY by imagination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캣츠 내한공연!

2007. 9.7 (금)~16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매주 공연 8시 / 토요일 8시, 10시 / 일요일 2시, 7시

주최: 광주일보 KCTV  
주관: 광주문화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그라비아출판: 최영미,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CATS